

브라질 화학산업 동향

(2014. 10. 16)

상파울루사무소

□ 브라질 화학산업의 특징

- 주요 석유화학단지 소재 지역: Capuava(Sao Paulo州), Triunfo(Rio Grandedo Sul州), Duque de Caxias(Rio de Janeiro州), Camaçari(Bahia州)
- 중간재 제조 중심
- 품목별로는 의약품, 포장재, 농약 등이 주를 이룸.

□ 가동률 및 생산실적

- 업계에서는 90% 수준을 정상 가동률로 인식하고 있으나, 2008년 이후 가동률은 80%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1~7월중에는 약 78%의 평균가동률을 기록하였음.
- ANDA(전국비료협회)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비료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7% 증가하였으나, 국내생산은 오히려 9.2% 감소하고, 동 기간 중 수입은 13.1% 증가했다고 발표함.
- 올해 1~7월중 비료용 중간재 생산은 3.8% 감소하고, 또한 7월말 현재 최근 1년 기준 생산은 3.3% 감소하여 국내생산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반면 개인소비재인 위생용품, 청소용품, 의약품 도료 등은 꾸준하게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.

화학제품의 생산 추이 (13. 8월 ~ 14. 7월, 전년 동기대비)

청소용품	3.6%	공업용 가스	0.3%
도료	3.2%	비료용 중간재	△3.3%
무기물	1.6%	유기 화학 물질	△6.8%
화장·위생용품	1.5%	기타 화학용품	△5.9%
의약품	0.5%		

출처 : IBGE (브라질 국립통계원)

□ 무역구조

- (구조적 무역적자) 국내 전체 소비 중 수입 비중은 35%이며, 생산의 10% 정도는 수출됨. 수입비중이 높은 분야는 비료, 농약,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플라스틱 수지이며, 주요 수출품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, 열가소성 수지, 의약품, 공업용 첨가물 등임.
- 국내소비 중 수입품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7%이었으나, 2000년에는 25%, 그리고 2006년 이후 급증하여 현재 35%를 기록하고 있음.
 - 연도별로는 1990년부터 2013년 중 소비는 연간 3.8% 증가하였고, 생산은 2.4%(수출 2.1%)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연평균 11.3%로 급증하면서 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. 수입품목 중 비료, 농약의 원자재 수입과 플라스틱, 의약품의 원료 등이 두드러짐.
 -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학제품의 국제시세가 하락하면서 브라질의 수입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유럽지역으로부터 화학, 제약부문의 원료를 수입하여 왔으나,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, 현재 중국 제품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10%를 차지하고 있음.
- 한편 브라질의 수출지역은 유럽과 중남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화학 업계는 동 부문에 대한 개발과 연구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국내시장에서 부족한 원재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.

화학업계 무역수지

(백만헤알)

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무역수지	△12,017	△21,762	△14,384	△18,892	△25,632	△26,973	△30,652
수출	10,914	12,225	10,877	13,477	16,234	15,189	14,635
수입	22,931	33,987	25,261	32,369	41,866	42,162	45,287

출처 : MDIC (공업무역개발부)

□ 향후 전망

- 업계는 내년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이는 미국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헤알화 평가절하가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임.
- IBGE(브라질 국립통계원)는 올해 화학부문의 소비는 1.7% 감소하겠지만, 내년에는 1.9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